

출발	영웅의 여정	영화, 맨오브스틸(2013)
평범한 일상	그저 평범했던 영웅	그저 평범했던 소년 시절의 칼엘(슈퍼맨)
전령관	모험에의 소명을 전달 받음 평범했던 영웅은 소명을 거부하나 결국 모험을 떠난다	자신의 비범함을 알게 된 소년,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내력을 알게 된다 그 후 아버지가 사고로 죽고 지켜만 봐야했던 자신을 자책하던 그는 결국 자신의 길을 떠난다
초자연적인 조력	알 수 없는 조력자에 의해 첫 관문을 지날 힘을 얻는다 단, 조력자는 '선의'만을 가진 이가 아닐 수도 있다.	방랑의 길을 떠난 칼엘, 남극에 숨겨졌던 그가 타고 온 우주선에 도착한다. 그의 정체를 알지만 그를 연민으로 지켜봐 주는 기자 '로이스'를 만나게 되는 한편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첫 관문의 통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첫 번째 난관을 극복 주인공이 자신에게 내재된 영웅의 모습을 각성하게 되는 계기	
고래의 뱃속 으로	죽음 혹은 죽음에 비견될 혹독한 고난 이를 극복한 영웅은 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의미를 알게 된다.	혼란을 느낀 칼엘은 로이스를 떠나지만 시작된 '조드' 장군의 침공, 로이스를 구하기 위해 조드 장군의 우주선에 오르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자각하며 탈출한다.

모험	영웅의 여정	영화, 맨오브스틸(2013)
시련의 길	계속해서 시련의 길을 헤쳐가는 영웅은 자신과 적대자가 둘이 아닌 결국 하나임을 깨닫는다	드디어 시작된 조드와의 결전 지구를 칼엘의 고향 크립톤으로 만드려는 조드와 그를 막는 칼엘 결국 그들은 하나이다
여신과의 만남	영웅으로서 준비된 자만이 여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파멸하게 된다 - 자격 증명	마침내 조드를 물리치고 로이스와의 재회 하지만 그녀는 지구인이고 그는 가공할 힘을 가진 이방인일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그는 다시 길을 떠난다.
유혹하는 여성	여신과의 결합으로 삶을 완성하게 되나 그를 유혹하는 또 다른 시련에 당면하게 됨	
아버지와의 화해	아버지(신)와의 화해를 통해 파멸을 피하고 다시 재생활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 대부분의 신화에서 신은 자비와 은혜를 정의와 분노로 표현	
신격화	해탈의 상태, 초월 하나가 둘로, 둘이 다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생명의 잉태 (우주 발생적 순환) *아담(하나)에서 이브(둘)로, 둘이 낙원(선)에서 추방(악)된 후 둘의 결합을 통해 인류가 존속 - 수많은 신화에서 이미 나오는 이야기의 성서적 각색(조셉 캠벨)	그의 힘을 의심하는 미국 정부와 선의의 공증을 약속하고 자신을 제지하던 아버지가 실은 자신을 격려하고 믿어주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 이로서 칼엘은 그 자신의 속박을 벗어던지며 슈퍼맨으로서 재탄생
홍익	궁극의 은혜 - 불로불사의 권능	

귀환	영웅의 여정	영화, 맨오브스틸(2013)
귀환의 거부	그가 받은 은혜를 통해 이 세상을 재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영웅 그러나 이 책임을 회피한 영웅은 많다	칼엘은 '클락'이라는 신문사 기자 신분으로 그가 속해있던 사회로 귀환한다. 그의 귀환은 미국 정부와의 중재를 맡아줄 '군장성'과 길러준 아버지의 애정과 신뢰를 이야기 해준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온갖 세상사를 담아내는 신문사의 기자 (그의 역할이 필요한 곳을 누구 보다 빨리 알 수 있는) 로서 영웅과 범인, 외계인과 지구인, 이방인과 거주자로서의 대립을 통합한다
불가사의한 탈출	귀환을 결심한 영웅이 초자연적인 조력에 힘입어 귀환의 난관을 극복	
외부의 구조	이러한 위기 극복을 통해 영웅은 신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귀환 관문의 통과	신의 세계(저승)에 살던 영웅은 자신의 세계( 이승)에 내려 올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을 지낸다 - 두 세계의 통합 지점(관문)	
귀환	자신이 있던 곳으로 일상으로의 복귀	신문사 기자 '클락' 하지만 그가 있음에 지구의 결정적인 위기는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암시
두 세계의 스 승	두 세계를 통합한 영웅은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권능과 자유를 얻는다.	
삶의 자유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면 죄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 그러나 이 깨달음은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 신화는 이를 인정하고 대립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한 방법	슈퍼맨 클락(칼엘)은 분명 우리와 다르다 하지만 인류애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으며 우리 역시 그를 인정할 수 있다.